

대표 도심 사찰 역사문화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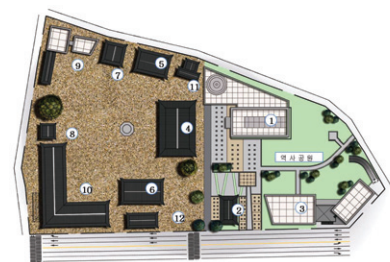
남북 화해무드에 불교교류도 활성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 시장이 8월 20일 조계사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지구로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 봉은사와 강남구,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정수 봉은사 신도회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 종로 조계사

조계종 · 서울시 20일 협약
전통문화벨트 조성 예정
최대 3500억 원 투입돼

서울 강남 봉은사

시 · 구청과 현장 조정 회의
신증축 불가 민원 해결돼
주차장 공원화 · 사찰 복원



봉은사 정비 계획도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사찰인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분)와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가 시민들을 위한 역사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조계사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지구로 조성·개발하기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8월 20일 체결했다.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만 최대 3500억 원에 이르는 대작불사다. 조계종과 서울시는 향후 실무협의 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조계사를 비롯한 이 일대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주중과 주말을 불문하고 많은 외국인 등으로 북적이지만 이에 관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 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계사를 비롯한 견지동 일대는 불교와 민족문화의 보고지만 다소 웅색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이 일대가 진정으로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본산으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역사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은 2013~2017년, 2018~2022년 총 2

단계로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인사동과 조계사, 경복궁을 잇는 전통문화 벨트가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은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측과 경복궁·인사동을 잇는 전통문화벨트 조성을 위해 논의해왔다.

사업 대상지는 조계종 견지동 45번지 일대 2만 8577㎡ 125필지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계사 대웅전, 우정충국을 제외한 현재 조계사 일대가 모두 재정비 된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현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우정충국, 전법회관이 위치한 지역이 정비된다. 이곳에는 10·27역사공원 및 역사교육관이 건립되며 교육관 지하에는 전통문화상품이케이드가 마련된다.

역사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0·27법년을 상기시키는 교육공간으로 마련된다. 조계종은 2009년 10월 조계사 등 서울지역을 10·27법년 교육관 건립부지로 선정할 바 있다.

이석심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은 "10·27법년 작전명의 '작계45'는 견지동 45번지를 의미한다. 법년 당시의 자리였던 이곳에 역사교육관이 건립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업은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심 속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이다. 토지매입비 등의 변수를 고려해 2600억원에서 최대 3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 삼성동 봉은사도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와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된다.

봉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강남구는 8월 23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민원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결의했다. 조정회의에는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그간 봉은사는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후 40여 년 넘게 여러 중복규제로 종교 활동에 필요한 추가적인 종교건물 신증축이나 시민 휴식공간의 건설에 제약이 받았다. 이에 봉은사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원 지정을 해제해 제대로 된 전통사찰을 건립하게 도와달라며 신도 등 2만8,500명의 서명부를 포함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서울시가 올해 초 역사공원 안에 전통사찰의 종교 시설 설치 가능하도록 '서울시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번 민원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이번 조정으로 강남구는 봉은사 측이 수립해둔 봉은사 가람정비계획에 공원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을 추가시킨 변경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시 역시 도시공원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후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는데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미 수립한 가람정비계획에 따르면 봉은사는 입구에 위치한 지상 주차장을 공원화하고 지하에 주차 시설 등을 갖추어 지상에는 예전 모습을 최대한 재현한 전통사찰로 복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봉은사를 변모시킨다.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봉은사는 발전이 정체돼왔다"며 "앞으로 봉은사가 서울의 명소가이자 전통사찰,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를 관련 규정의 개정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원만히 해결해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신종일 · 노덕현 기자

조계종 민주본 · 천태종, 잇달아 北과 실무회담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민족화합을 위한 교류에 나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주본, 본부장 지홍)는 8월 18일~19일 양일간 중국 심양에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이하 조불련, 위원장 강수린)와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본은 이번 협의를 통해 △금강산 신계사 낙성 6주년 기념 남북 합동법회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 봉행 △서산대사 남북합동 다례제 11월 19일~22일 묘향산 보현사 봉행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수혜지원 적극 검토 △(가칭)평양불교회관 건립사업 중장기적 추진 등을 협의했다.

민주본은 평양불교회관 건립에 대해 "우선 조불련은 부지 및 건물 확보를 위한 검토를, 조계종은 사업 시행의 타당성 검토 및 연구조사를 진행키로 했다"며 "남측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북측 조불련 전국신도

회 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10월 신계사 합동법회 때 남과 북의 신도 대표단이 참석하고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북불교도는 북측 사찰 성지순례와 북측사찰문화재 공동전수조사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추후 논의한다.

조계종 10월 신계사서

남북합동법회 봉행 예정

천태종 개성 영통사서

11월 대각국사 다례제

이번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에는 남측대표단으로 지홍 스님(조계종 민주본 본부장), 종훈 스님(조계종 민주본 집행위원장), 성원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등이 북측대표단으로 이규룡(조불련 서기장), 차금철(조불련 부장), 한정철(조불련 전국신도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함께 천태종도 11월 7일 개

성 영통사서 조선불교도련맹과 공동으로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천태종은 8월 17일과 18일 중국 심양 칠보산 호텔에서 조선불교도련맹 측과 실무회의를 갖고 개성 영통사 낙성 8주년 및 대각국사 912주기 열반 다례제 남북합동법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실무회의에는 남측대표로 천태종 사회부장 보광 스님과 사회국장 성공 스님이, 북측 대표로는 조선불교도련맹 리규룡 서기장, 차금철 부장, 한정철·신석철 씨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남북합동법회 합의에 이어 관련 실무회의를 10월 중순 경 개성에서 다시 갖기로 했다.

천태종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영통사·관음사·안화사 3사순례를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조불련 측은 남측 통일부가 승인한다면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천태종 측은 단양 구인사서 대각국사 열반 다례제 남북합동 봉행 및 개성에 있는 천태종 사적지 합동 발굴 연구를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북측 대표단도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국신도회 부위원장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일·정혜숙 기자

조계종, 부정 선거 감시단 발족한다

중선위 22일 회의서 결정... 교구별 1인 추천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시단이 발족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어)는 8월 22일 제273차 회의를 열고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위원단을 늦어도 9월 13일까지 구성키로 결의했다. 공명선거위원단은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인 씩을 추천받아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중앙총무기관 및 교구본사

교역직 종무원,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소청심사위원 등은 공명선거위원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중앙선거위는 이날 회의에서 원담 스님의 총무부장 임명으로 공식이 된 복지부문 중앙총회의원에 단독 입후보한 법상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중앙총회의원 보결선거가 치러진 제19교구 화엄사, 제22교구 대흥사 총회의원에는 순천 동화사 주지 진성 스님과 해남 일지암 암주 법인 스님이 당선증을 받았다. 신종일 기자



955호 INDEX

조정 · 방장 하안거 해제 법어 2·3
불영사 천축선원 해제 현장



시방세계 50주년 맞은 대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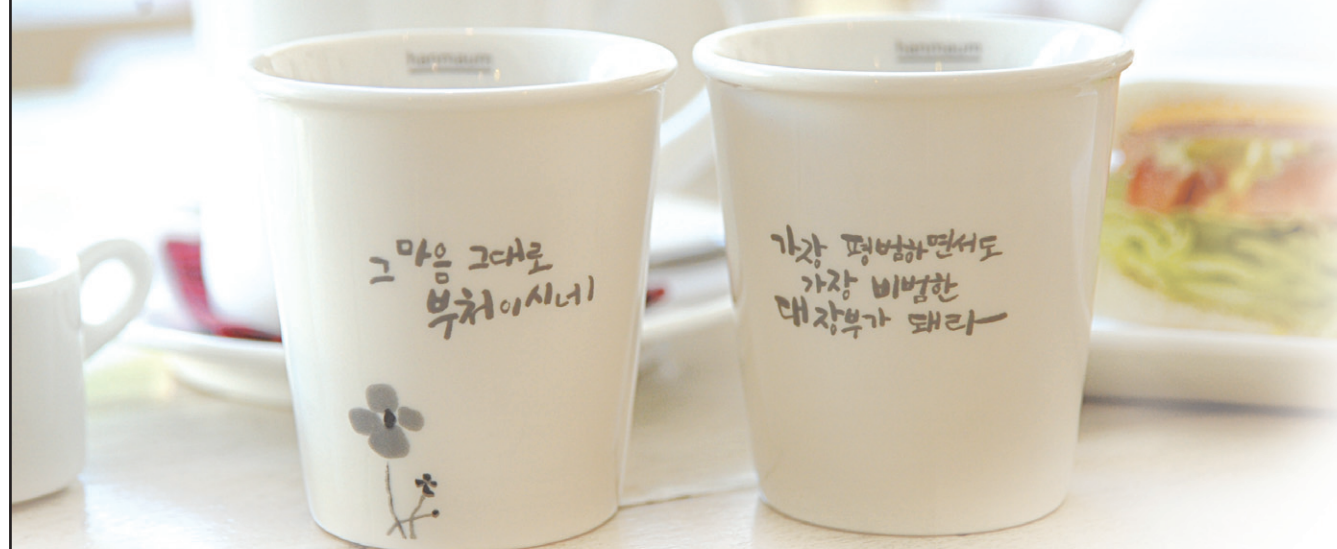
5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풍기 회암사

해외불교 탐욕 반대 명상시위

문화 동국대 평생교육원 찬불스쿨 개원

범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그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도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날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